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우화적 상상력으로 표현된
회화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최 하 영

우화적 상상력으로 표현된
회화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유근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최 하 영


인 준 서

최하영의 석사 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이만수 

심사위원 유근택 

심사위원 권기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동물과 자연을 존중하며 함께 공존하자는 사고를 기반으로 2017년-2020년까지의 작업과 2020년 ‘작당모의’ 라는 석사 학위 청구 전시의 작품을 통해 기술하였다.

현대사회는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동물과 자연을 도외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며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이 동물,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내용을 작업에 표현함으로써 보는 이들의 공감을 유도하고자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우화를 통해 교훈을 얻듯이 우화적 설명기법을 회화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주제전달을 하고자 하였다. 현실에 대한 풍자와 해학적 요소를 녹여내어 작품 속 대상들을 의인화시켜 표현하였다. 그리고 더욱 깊이 있는 표현을 위하여 우화의 개념과 표현요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예술 안에서 어떻게 우화적 요소가 표현되는지 알아보았다.

우화적 요소를 활용한 예로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로테스크한 표현방식으로 풍자성을 시각적으로 표출하였고 팔대산인은 시대상에 대한 풍자와 작가의 감정을 자연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우화의 범주에 동양 미술 또한 포함됨을 알게 해준다.

우화적 요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작품 안에서 적용된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 과정을 기반으로 비판의식을 담아 대상에 대한 주관적 표현을 확립하였고 본인 작품의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작업 속 주체인 동물들을 장난감이나 물건처럼 표현함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풍자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대상에 대한 변형과 왜곡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 또한 시야가 확장되어 대상이 동물에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확장성이 작품을 통하여 서사적으로 드러나며 보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본 연구자는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화적 설명방식으로 회화에 표현하였다. 이를 토대로 초기 작업부터 후기 작업까지의 변화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 또한 파괴되는 자연과 동물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미래를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형성배경	3
1) 일상 속에서의 관찰과 사고	3
2) 우화의 개념 및 표현요소	7
3) 동물과 자연을 소재로 한 풍자	13
2. 작품 표현 방법 및 설명	18
1) 소재의 주관적 시각 표현	18
2) 표현기법 및 재료적 특성	33
III. 결론	38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행복을 찾아서 탈출한 오리들, 116.8×91.0cm, 장지에 채색, 2019	6
【작품2】 분노, 91.0×116.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16
【작품3】 드릴 박힌 강아지, 45.0×5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17
【작품4】 돼지공장, 100×1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20
【작품5】 Dear pig, 45.0×5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21
【작품6】 돼지깡통, 91.0×116.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22
【작품7】 벽 너머 돼지가 살아가는 법, 159.0×9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24
【작품8】 고장난 것들, 27.3×34.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26
【작품9】 고장난 것들2, 34.8×27.3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26
【작품10】 예쁘게 좀 봐줘, 91.0×116.8cm, 장지에 채색, 2020	27
【작품11】 빛나는 밤 어딘가에서, 90×90cm, 장지에 채색, 2020	28
【작품12】 공존, 116.8×180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31
【작품13】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21×21cm×9, 장지에 채색, 2020	32
【작품14】 Drawing, 30×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34
【작품15】 Drawing, 30×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34
【작품16】 Drawing, 30×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34
【작품17】 차라리 심장이 없는 게 나을지도 몰라, 181.8×227.3cm, 장지에 혼합재료, 2019	36
【작품18】 작당모의 집합소, 145.5×336.3cm, 장지에 채색, 2020	37

도 판 목 차

- (도판1)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주토피아』, 애니메이션 포스터,
108분, 2016 8
- (도판2) 八大山人 安晚帖_팔팔조도(叭叭鳥圖), 紙本水墨 11
- (도판3) 프랜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 Painting 1946, 197.8×132.1cm,
1946, 뉴욕, 근대미술관 14

I. 서 론

사람은 각자의 경험, 기억, 가치관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존재한다. 연구자 또한 본인의 내재되어있는 사고, 혹은 기억과 감정을 바탕으로 일상 속의 사물과 풍경을 마주한다. 그 중에서도 소외된 사물이나 동물, 자연에 시선이 머무른다. 대상에 대한 관찰은 동물과 자연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면의 고찰로 이어진다. 고찰을 끝으로 인간 지향적으로 발달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그들도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의미를 담아 작품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본인의 무의식에 내재된 사고를 바탕으로 소재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시각을 작품 안에서 형상화하고 풍자적 요소를 담아 우화적으로 접근한다. 석사학위 청구전인 ‘작당모의’의 의미 역시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풍자적 요소를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소재의 주관적 시각 표현이 조형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회화적 표현이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공감을 유도하며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우화적 표현은 이미지 안에서 대상의 주인공화를 통해 교훈을 전달한다. 이러한 교훈은 현실적 풍자를 이용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여 인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태도,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는 현실을 풍자하고 싶었고 우화는 역사적으로 사회와 정치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거나 어떠한 현상, 세태를 풍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여 왔다. 우화의 교육적 해석에 따르면, 우화는 비유를 통해서 마치 잘 그려놓은 한 장의 그림처럼 간결하지만 인상적인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던져준다.¹⁾ 이에 따라, 연

구자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태도에 대한 풍자의 수단으로 우화적 기법을 선택하여 작업을 매개체로 보이는 시각적인 감성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한다.

본론에서는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적인 배경인 우화의 개념과 우화적 형식의 표현요소에 대해 설명하며, 일상 속에서의 관찰과 사고를 바탕으로 동물, 자연 소재를 매개체로 풍자적 요소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오래전부터 예술에서 우화적인 요소를 담아 표현하는 작가는 많았다. 그중에서 중국 청초에 활약한 명의 유민화가 팔대산인(八大山人)에 대해 연구해 보고 작품 속 등장하는 소재들과 우화적 요소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우화적 요소들로 하여금 연구자의 일상 속에서의 사고들의 재조합을 기반으로 작품을 통해서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목한다.

작품 표현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작업을 통해 소재를 바라보는 연구자의 주관적 시각표현을 고찰하고, 소재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어떠한 방식으로 작품 속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했는지 살펴본다. 소재를 바라보는 영역이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표현법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확장에 따른 효과적인 조형언어를 보여주고 싶었다. 또한 화면 안에서 주관적 시각표현 및 회화표현을 보여준 영국의 표현주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작품과 연구자의 작품이 어떠한 유사성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작품에는 회화적 표현 방식 중 드로잉적인 요소 혹은 선의 요소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이 가져오는 시각적 효과를 분석하고 작품에 보이는 색채 표현과 재료적 기법을 통해 사물을 바라보는 본인만의 주관적 시각 표현을 보다 깊게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작품의 내용 및 표현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앞으로 연구자가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할지에 대해 고찰해본다.

1) 장정호, 「이습우화의 교육적 해석 : 우화로서의 특징과 그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부천대학교 학술논문, 2019, p.162

II. 본 론

1. 작품 형성 배경

1) 일상 속에서의 관찰과 사고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항상 시선을 끌거나 관찰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연구자가 관찰을 지속 하는 이유는 대상에 대한 기억 혹은 무의식중에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내재되어 있는 사고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장 그르니에(Jean Grenier, 1898-1971)의 책 『일상적인 삶』에서 일상에서의 관찰을 그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행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간다. 때로는 고독이나 침묵 혹은 비밀로 인해 사람들과 단절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들, 이 모든 존재 양태들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표면적인 목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그것들을 분석해 보면, 일상생활로부터 삶의 결style 자체로 넘어가는, 나아가 예술 작품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오솔길이 드러난다.²⁾

연구자는 길을 걷다가 소외되어 보이는 사물이나 동물, 자연을 주로 관찰을 하곤 한다. 일상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현재 본인이 바라보는 자연풍경이 언젠간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본인의 기억과 과거

2) 장 그르니에, 김용기 옮김, 『일상적인 삶』, 서울 : 민음사, 2001, p.11

의 경험을 기반으로 관찰대상을 보호, 존중해 주고 싶다는 사고로 이어진다.

오늘날 점점 발달해가는 사회 속에서 환경 문제, 혹은 갈 곳 없거나 버려지는 동물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상의 관찰이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길에서 로드킬을 당하는 길고양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도와주고 싶었으나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다. 길고양이는 이미 의식이 없어보였기 때문이다. 그 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위급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았지만 로드킬 당한 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려가도 야생 길고양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많았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시되어지지만 동물은 동물이라는 이유로 존중 받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분노 및 동정의 감정을 느끼게 됐다.

연구자는 간접경험인 매체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환경오염 혹은 동물학대 관련된 기사와 영상을 보고 일상 속에서 관찰한 것들과 더불어 간접경험을 통해 느꼈던 감정을 기반으로 본인의 작업에서 표출한다. 일상 속에서 작가가 개체 혹은 사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예술가에게 창조적인 새로운 매체가 되며 대상을 관찰하는 개인의 주관적 의미를 투여하면서 작품 속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창조된다.³⁾ 우리는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개인의 감정, 기억,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대상을 바라 볼 때 자신이 관찰하는 대상에 대해 항상 질문을 던져야 사물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머릿속에서 재창조된 이미지는 생리학적인 방식을 따라 우리를 스쳐 지나가 우리의 뇌와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⁴⁾ 그래서 연구자의 작품에는 현대 사회 속에서 약자라 생각 되는 동물과 자연을 보호하고 존중해 주고 싶다는 내재된 사고를 기반으로 소재를 바라보고 대상을 새로운 이미지로 재해석하여 등장하게

3) 박재연, 이미진, 「일상적 사물을 소재로 한 도자작품 연구」, 조선대학교 조형미술연구소 조형미술논문집, 2012, p.2

4) 마틴 게이퍼드, 주은정 옮김, 『다시, 그림이다 : 데이비드 호크니와의 대화』, 서울 : 디자인하우스, 2012, p.84

된다.

과거 연구자의 초기작업인 2017년도, 2018년도 작품을 보면 연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과 평소에 내재된 사고 그리고 간접경험을 통해 영향을 받은 소재를 조합하여 작품에 등장시키며 비판의식을 담아 새로운 이미지를 재창조 하였다. 동물을 소재로 많이 등장시키며 작업에 보이는 주제는 '생명존중'이라는 직접적인 표현과 더불어 연구자의 직접적인 경험 보다는 간접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동물 소재에 초점을 맞춰 작업을 했다.

2019년도의 작업부터는 연구자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관찰한 풍경 및 동물들을 본격적으로 등장시키며 깊이를 더해갔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모습에만 맞춰서 풍자하고 비판했다면 최근 작업은 본인의 경험과 우리들의 삶에 대입하여 작품해석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넓혀가고자 하였다. 【작품1】은 연구자가 일본 삿포로 여행을 하던 중 자연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한참을 바라보게 되었던 풍경을 담아낸 작업이다. 어렸을 적부터 도심 속에서 자라온 연구자에게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이 마음을 울렸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자작자무 숲 속에서 자유롭게 억압받지 않고 지내는 동물들의 행복한 모습을 관찰하며 그 때 보았던 느낌과 기억을 연상해 작품 속에서 풍경을 본인만의 조형언어로 색감, 드로잉적인 요소를 보여주었다. 자유롭게 뛰노는 동물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렇지 못한 동물들을 표현하며 일부러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딱딱한 장난감처럼 외관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연구자의 조형언어 표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소품들을 직접 연출하고 상상력을 조합하여 회화적으로 풀어 나간다. 대비되는 색감 사용과 동물들의 외관모형을 통해 작품 속에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도록 의도하였다.

2020년도 연구자의 작품을 보면 소재 중에 '새'가 많이 등장한다.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라는 소재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드

로잉을 통하여 순간순간 동작을 담아낸다. 걸음을 옮겨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에서 마주한 대상의 새로운 면과 다양한 요소들을 발견하면서 작업에 표현하고자 한다.

새들을 바라보다 보면 파괴되어 가는 자연 속에는 그들에게 안락하게 머무를 공간조차 없어 보였다. 보도블록을 걷고 있는 비둘기들은 쫓기기에 바빠 보였고 온통 높고 뻣뻣한 건축물로 뒤덮인 서울 시내를 걷다보면 복잡한 건물 사이에 전깃줄이 엉켜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그 전깃줄에 다닥다닥 붙은 새들을 보며 그들이 전깃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전깃줄만이 그들의 가장 안락한 공간이 되어버린, 그들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을 계속 하게 되면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품1】 행복을 찾아서 탈출한 오리들,
116.8×91.0cm, 장지에 채색, 2019

2) 우화의 개념 및 표현요소

동화가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라면 우화는 어른들을 독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며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이다. 우화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친숙한 소재를 활용하여 내용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재미있는 문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화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을 소재로 하여 의인화를 통해서 인간의 이기심이나 어리석은 행위를 조롱하며 비판한다. 그 안에서 주체가 되는 동, 식물은 비유를 통하여 풍자성을 나타내고 우화는 알레고리⁵⁾의 대표적인 형식을 보여준다. 단순히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아이러니, 해학성, 풍자성을 보여준다. 또한 그 안에서의 모순을 폭로하고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솝우화⁶⁾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물들로부터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기억에도 오랫동안 남아있다. 표면적으로는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역설적 구조 덕택에 인간 존재와 삶의 복잡성을 포착하게 해주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모델이 된다.⁷⁾ 우화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개선하게 해주며 교훈을 공연히 드러내는 대신 동물이나 새, 나무 같은 의인화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흥미 있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공감 하도록 유도한다.⁸⁾ 우리가 우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화가 지니고 있는 유머러스한 요

5) 알레고리는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기(other speaking)'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알레고리아(allegoria)를 어원으로 한다. 우유(愚諭), 우의(寓意), 풍유(諷諭)로 불리기도 하는 알레고리는 인물, 행위, 배경 등이 일차적 의미(표면적 의미)와 이차적 의미(이면적 의미)를 모두 가지도록 고안된 이야기이다. 예를 들면 『이솝우화』와 같은 동물 우화는 일차적으로는 동물 세계를 보여주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 세계에 대한 풍자와 교훈을 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알레고리 [Allegory]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6) 2000년 전 그리스인 이솝이 창작해 구전되다 17세기 프랑스 시인 라 Fontaine(1621~1695)에 의해 정리된 우화집.

7) 김태환, 『우화의 서사학 40가지 테마로 읽는 이솝 우화』, 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16, p.7

8) 이솝, 송경원 옮김, 『(새롭게 재해석한)이솝우화전집 = Aesop's fables』, 고양 : 하늘연못, 2008, p.387

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 하지만 그와 닮은 동, 식물들이 등장했을 때에는 인간 특유의 영특함이 결여된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며 자연스레 웃음을 자아내고 사람에게 요구되는 완벽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일 것이다.⁹⁾



(도판1)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주토피아』, 애니메이션 포스터, 108분, 2016

우화적 요소들은 문학 작품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에서도 많이 나타나며 애니메이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Zootopia)』(도판1)는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를 통해서 우화적 특성을 볼

9) 조경훈, 「우화를 통한 인간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10

수 있다. ‘주디’라는 캐릭터는 작고 나약한 토끼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극중에서 경찰이 되고 싶어 한다. 토끼 ‘주디’가 경찰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경찰이 된 후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지니고 있는 편견을 드러낸다. ‘주디’는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존재이지만 자신도 차별과 선입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순적인 캐릭터이기도 하다. 여우 ‘닉’을 만나면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며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애니메이션 속에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차별, 편견으로 나타내지지만 이는 인간사회의 인종차별 및 편견과 부조리를 다루면서 우화적인 기법을 통해 이솝우화처럼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이러한 우화적 기법은 애니메이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술 작품 안에서 풍자와 해학은 빠질 수 없는 표현 방식이다. 그 중에서도 미술에서의 우화 표현은 특정장면을 단편적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알레고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오브제를 설치함으로써 우화적 요소를 나타낼 수 있으며 연구자의 작품에서 주요한 표현 기법으로 나타난다.

중국 청초시대에 활약한 명나라의 유민화가이자 동양화가인 팔대산인(八大山人)¹⁰⁾을 예로 들어보겠다. 팔대산인은 특이한 구도와 함께 기운이 넘치는 활기찬 필묵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수묵을 통한 자유분방한 필선을 보여주며 동양화법을 구사하였다. 주로 새, 물고기, 짐승을 표현하는 영모화(翎毛畫) 또는 화훼류(花卉類), 산수화(山水畫)등을 그렸으며 그림 속 표현하는 대상에 의인화를 하여 자신의 감정 및 울분을 표현하며 자신의 내면의 한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작품 속에서는 자신이 처한 시대적인 특성의

10) 중국 청조(淸朝) 초의 승려·문인·화가. 명(明) 왕실의 후손. 속칭은 주탑(朱耷). 자는 설개(雪個). 명조 멸망과 더불어 승려로서 망국의 정한을 그림으로써 표현하였다. 상징적 소박한 필치로 절대 자연의 화경에 도달했으며, 주로 산수·화조를 그렸다.

[네이버 지식백과] 팔대산인 [八大山人] (인명사전, 2002. 1. 10., 인명사전편찬위원회)

반영이 이루어지며 명나라와 청나라의 대립하는 모습을 새, 동물, 작품 속 소재를 통하여 빗대어 표현하였다. 작품 속 등장하는 새, 동물의 표정이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해준다. 소재들을 통해서 인간보다 더 웅변적으로 표현하며 작품 속 대상에 자신을 의인화하였다. 작가 자신의 주관적 감정 및 사고를 결합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이 처한 시대를 풍자하는 우화적인 요소를 발견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풍자적기법과 더불어 우화적 요소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팔대산인이 겪은 시대적 배경의 영향이 컸다. 명조가 멸망한 후 팔대산인은 유목화가 생활을 하며 청조의 통치하에 망국파가(亡國破家)의 한, 이민족에 대한 원한과 풍자가 저변에 깔려 있는 문인화의 시(時), 서(書), 화(畫)를 통해 적극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보여주었고 청 왕조에 대한 저항의식을 우화적 기법을 통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¹²⁾

(도판2)는 팔대산인의 팔팔조도(叭叭鳥圖)이다. 그의 작품에는 등장하는 동물마다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는 점을 알 수 있다. (도판2)에서는 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발로 땅을 짚고 있고 슬픈 표정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눈을 감고 있는 새의 모습은 마치 작가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꼬리는 들고 있지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는 새의 형체를 통해 명말 청초의 변화되는 시기에 숙명을 감수하는 작가의 울적한 심정과 의인화를 통하여 인간의 감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바위 위에 한발로 지탱하고 있는 새의 모습을 통해서 청조에 투항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팔대산인은 수묵으로 사의를 묘사하기 좋아하였고 회화로써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표출하며 그림을 통해서 우화적 표현으로 구체적 상징성을 보여주었다.¹³⁾

11) 연구원자료, 「팔대산인 화조(八大山人 花鳥)·어화(魚畫)의 미적 특성」, 상명대학교 조형예술연구소 조형예술연구, 2005, p.6

12) 장유연, 「팔대산인의 삶과 예술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15

13) 서호상, 「八大山人의 화풍과 사상적 배경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32



(도판2) 八大山人 安晩帖_팔팔조도(叭叭鳥圖), 紙本水墨

연구자 또한 작품 안에서 우화적 표현요소인 풍자 기법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어른들을 위한 우화처럼 작품 내용을 풀어나간다. 연구자는 환경오염, 생명존중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풍자하고 이에 따른 비판의식을 풍자성과 주관적인 사고를 결합하여 작품 속 동물을 딱딱한 장난감처럼 형상화 시킨다. 그리고 우화적 상상력으로 대상을 주인공화 시켜 대상이 취한 행동, 표정으로 회화에 접근하고자 한다. 동, 식물 혹은 사물들은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나타내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거나 자신들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동물들의 행동을

통해 현실에 대한 풍자, 인간의 본성 풍자, 즉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3) 동물과 자연을 소재로 한 풍자

우리는 말하고 싶은 무언가를 표현할 때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역시 표현의 수단이며 그려진 작품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도 전달 하고자 한다. 예술작품 안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식이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우화적 요소 중에 풍자방식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풍자는 사회적 현상이나 현실을 과장, 왜곡, 비꼬는 방법으로 나타나지며 주어진 사실을 곧이곧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 비꼬아서 표현하여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고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¹⁴⁾ 우화적 요소 중 하나인 풍자적 기법을 통해 연구자는 자연을 파괴하거나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는 현실, 현상, 세태를 풍자하는데 이 기법을 실질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또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과 생명존중 및 공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동물 및 개체의 표현을 일그러트리거나 잔인하게 과장하여 나타내면서 비판적 태도를 과감하게 드러낸다. 즉 그로테스크(grotesque)¹⁵⁾적인 표현법으로 묘사되고 직접적인 주제표출을 통해 비판의식을 더욱 강조시킨다. 이는 작가 개인의 주관적 사고를 명확하게 전달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법을 구사하며 비극적 방식을 형상화 시킨 20세기 영국의 표현주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¹⁶⁾의 작품 ‘회화 1946’과 2017년 연구자의 초기작품을 비교하

14)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1839&cid=47319&categoryId=47319>

15) 원래 그로테스코(grotesco)란 이탈리아어로 보통의 그림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를 장식하기 위한 색다른 의장(意匠)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한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그로테스크 [grotesque]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9045&cid=40942&categoryId=32856>

16) 영국의 표현주의 화가. 종교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삼면화 형식에 고립된 인물 형상을 그로테스크하게 담아 인간의 폭력성과 존재적 불안감을 표현했다. 20세기 유럽회화의 역사에서 가장 강렬하고 불안하며 논란을 일으키는 이미지의 창출자로 평가받는다. 그의 작품 《루치

여 보았다.



(도판3) Painting 1946, 197.8×132.1cm 뉴욕, 근대미술관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도판3)을 보면 강렬한 색감과 거친 표현법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도축된 동물들도 매달려있고 대상의 모호한 형태와 즉흥적인 화풍으로 어두운 색감과 동시에 형태를 알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전쟁 직후 그린 작품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폭력성은 신랄하고 극도

안 프로이트에 대한 세 개의 습작》은 2013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세계 최고가를 경신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프랜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 (두산백과)

의 불안감을 보여주고 비꼬인 블랙코미디¹⁷⁾풍의 풍자가 화면 전체를 덮으며 대상을 과장되게 늘어놓아 희한한 느낌을 자아내는 동시에 부조리 상태를 일관되게 표현한다.¹⁸⁾ 연구자의 2017년도 작업 【작품2】 역시 그로테스크적인 느낌이 강하며 환경이 파괴돼서 죽어가는 북극곰의 모습을 보며 느낀 분노의 감정을 매우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끔찍하게 표현하였다. 【작품2】를 시작으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비판 의식, 즉 그 대상을 변형 하거나 딱딱하게 만들거나 주관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드로잉을 구현해 나간다. 그때 느꼈던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드로잉을 하며 색감과 재료도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았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상상력과 함께 감정을 표현하니까 뒤틀려지는 형체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로부터 우연적 느낌을 더하여 더욱 동적이고 회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작품에 보이듯이 개체의 형태는 잘려있기도 하고 무생물처럼 표현되어지지만 귀여운 캐릭터나 장난감의 모습도 연상케 하여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잔인성과 더불어 친근감을 자아내준다. 주체가 되는 동물들의 모습의 일그러짐 혹은 버려진 공구들과 더불어 변형되어진 동물들의 형태를 통해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며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체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작품 속 등장하는 동, 식물 소재의 형태는 연구자가 수집한 장난감이나 잡동사니를 기반으로 재조합해 나타난다. 【작품3】에서 동물들은 공구들과 합쳐진 모습으로 등장하거나 건전지가 필요한 장난감처럼 묘사되어있다. 이는 쉽게 사고 버려지는 애완동물의 현실을 비판하며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17) 희극의 한 형식으로서 고통·우연·잔혹·죽음이라는 비극의 제재로부터 웃음을 유발시킨다. 비극은 극이 다루는 개인적 고통의 의미를 충분히 전하며 대상과 거리를 두는 자기 방어적인 과정을 보여주어 관객을 웃게 만들지는 않는데, 블랙코미디는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블랙 코미디 [black comedy] (드라마사전, 2010., 김광요, 박진권, 황성근, 류용상, 김종대)

18) 루이지 피카치, 양영란 옮김, 『프랜시스 베이컨 : 1909-1992』, 서울 : 마로니에북스, p.21,23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공구, 버려진 물건들과 결합해 시각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유행하는 애완견이 있으면 그 종만 생산해 내려하고 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비판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공장에서 장난감을 만들 듯이 행하는 현실이 분노를 자아냈다. 이때 느꼈던 감정을 작품 속에서 동물의 모습을 망가진 장난감처럼 표현하며 표출한다. 키우다가 버려질 수도 있고 유행이 지나서 쓸모없어질 수도 있는 현실을 담지만 망가져 보이는 동물 장난감은 건전지를 이용하거나 콘센트로 충전을 하여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극도의 대비와 이질감을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보여주며 인간의 이기심을 풍자한다.



【작품2】 분노, 91.0×116.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품3】 드릴 박힌 강아지, 45.0×5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2. 작품 표현 방법 및 설명

1) 소재의 주관적 시각 표현

연구자가 마주하며 시선을 사로잡는 대상들, 과거의 경험과 내재된 사고를 기반으로 소재를 바라보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새롭게 재조합하여 이미지를 창출한다. 직접 경험한 것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 혹은 무의식 속에서 느꼈던 비판, 분노, 동정 등의 감정을 형상화 시켰다. 연구자의 초기 작업에서는 동물 역시 사람과 똑같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함부로 다뤄지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으로 대상을 잘려있게 묘사하거나 그로테스크적인 느낌을 살려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최근 작업들은 시야를 확장시켜 포괄적인 내용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고 사람들만의 편리를 추구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그들도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를 담아 표현한다. 작품 속에는 귀여운 동물캐릭터처럼 보이는 딱딱한 형태의 동물들이 주체가 되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연구자의 초기 작업에서는 ‘돼지’가 소재로 많이 등장한다. 돼지에 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돼지는 동물이나 생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지닌, 돼지로 대표되는 동물들을 장난감 다루듯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부터 지니고 있었던 돼지저금통이 연상되었다. 돼지의 형상을 한 채 동전에 투영된 인간의 욕심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용해야만 하는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이 돼지저금통을 모티브(motive)¹⁹⁾로 다양한 동물들을 장난감화 시켜서 작업에 등장

19) ‘움직이게 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motivum’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예술 창작 혹은 표현의 제작 동기(製作動機), 동인(動因), 원동력(原動力)을 뜻한다. 원래는 창작과정에서 그 활동의 동기를 만들어 주는 사물 또는 예술적 착상에 있어서의 대상적 계기를 의미하지만, 미술에서는 예술가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작품을 창작하게 하는 대상이나 체험, 표현의 의도가 유발되는 테마나 소재를 가리키기도 한다.

시키게 된다.

【작품4】는 정사각형 틀을 한 공간처럼 생각을 하고 그 공간 안에 동물들이 비좁게 갇혀 있는 모습을 형상화시키며 표현하였다. 비좁은 우리에서 사육당하는 동물을 떠올릴 수도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생매장당하는 동물들을 떠올릴 수도 있다. ‘돼지공장’이라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생명을 물건처럼 다룬다는 무의식 속에 내재된 비판의식을 작품 속에서 표출하고자 하였다. 돼지저금통의 단순한 이미지와 화면 속에서 개체들의 반복성을 통해 시각적인 집중도를 이끌어낸다. 언뜻 보면 귀여운 돼지캐릭터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들이 엉켜있고 서로 밟고 누르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준다. 개체 자체의 외관은 귀여운 이미지이지만 색감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더욱 부각시킨다. 돼지저금통을 소재로 무의식속에서 쏟아내는 드로잉들을 기반으로 연작 시리즈를 만들어갔다. 동일한 주제를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 다양한 변형이 이어지는 것이 연작의 장점이다.²⁰⁾ 초기에는 돼지저금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돼지를 딱딱하고 단단한 질감의 특성으로 만들어 나갔다. 돼지저금통의 형상을 하고 있는 돼지들을 반복해 그려나가면서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적인 특성을 주기위해 주름형태를 만들어갔다. 수많은 드로잉들을 생성해내면서 다소 단조로웠던 돼지저금통의 모습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창작과정에서 돼지저금통 형태 안에서 도형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원형부분의 코는 더 납작하게 몸통은 더 원기둥의 모형에 가깝게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도형적인 특성이 도드라지면 더욱 생물이 아닌 사물 같은 조형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돼지 코 부분을

[네이버 지식백과] 모티브 [motive, motif]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20) 프란체스코 갈루치, 김소라 옮김, 『피카소 : 무한한 창조의 샘』, 서울: 마로니에북스, 2007, p.22

가지각색의 원형의 형태로 만들고 돼지 몸 부위 역시 손 가는대로 자유롭게 형태를 만들어 왔다.



【작품4】 돼지공장, 100×1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품 속에서의 구성은 개인의 주관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과 상상력의 전개방식을 통해 왜곡과 변형을 대입하여 자유롭게 구성하였다. 형태론적 관점에서 돼지저금통의 몸의 형태와 유사한 ‘원기둥’에 영향을 받아 원기둥과 비슷한 성질의 사물들을 돼지저금통과 조합하였다.

【작품5】, 【작품6】은 돼지저금통의 모습을 후추통 또는 캔 모양에 대입하여 새로운 돼지저금통의 오브제²¹⁾를 탄생시켰다. 【작품5】에서는 비슷한

21) 일반적으로는 물체, 대상, 객체 등을 의미하나 미술에서는 쉬제(sujet[프], 주제)에 대응하여 일상적 합리적인 의식을 파괴하는 물체 본연의 존재방식을 가리킨다. 다다이즘의 레디메이 드는 기성품의 일상적인 위치를 변질시킨 것이고 쉬르레알리즘의 상징기능인 오브제는 성적

형태의 개체들을 일률적으로 배열하면서 화면 속에서 새로운 조형성을 보여 준다. 반복적으로 나열됨과 동시에 어느 한 부분에서는 밀집되거나 흩어지는 구성을 통해서 화면 안에서 시각적인 안정감과 함께 동적인 힘을 나타낸다. 비슷한 원기둥 형태의 오브제들을 배치함으로써 작품 내에 생성된 이미지와 이미지간의 상호관계는 전체와 부분이 정렬된 질서에 의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이미지를 한 개체로 보았을 때 각각의 특징도 나타난다.²²⁾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태와 색감으로 개체들을 나열하지만 왜곡과 변형을 통하여 일률적인 질서사이에서도 각 개체 마다 집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나타냈다.



【작품5】 Dear pig, 45.0×5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욕망과 환각을 불러 일으키는 작용을 가진다. 제2차대전 후의 폐물을 사용한 조각(⇒정크 아트, 아상블라주)은 공업사회에 있어서 오브제의 새로운 전개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브제 [objet]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소 편집부)

22) 조신영, 「이미지의 나열과 반복을 통한 모호함의 시각적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27

【작품6】은 화면 속에서 개체들의 다시점 구성을 바탕으로 동적인 힘을 느낄 수 있다. 화면 앞쪽과 테두리를 기점으로 빼곡하게 대상들을 밀집시켜 놓았다. 화면 테두리에 개체들을 밀집시키고 가운데로 시점이 이동할수록 중력에 떠다니듯이 개체들을 풀어두었다. 밀집과 흩어짐을 통하여 화면 속에서 유동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캔, 깡통, 버려진 쓰레기, 철 같은 질감의 오브제를 떠올리게 하는 사물들과 조합함으로써 여러 형태들의 개체들을 등장시키며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존중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주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다양한 물체의 반복은 대상 각각으로부터 리듬감과 운동감을 생성하고 시선의 이동 역시 가능해지며 개체들의 응집력을 통해 시선의 흥미를 더해준다.²³⁾



【작품6】 돼지깡통, 91.0×116.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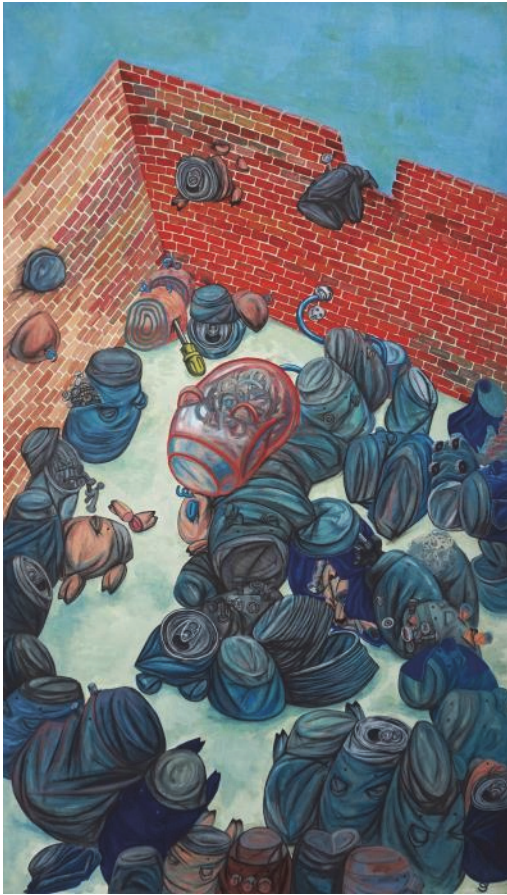
23) 정혜윤, 「색면의 반복과 중첩에 의한 유기적 형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46

네모난 화면을 한 공간처럼,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사물이나 개체들의 구성을 해오던 연구자는 【작품7】을 시작으로 벽들을 소재로 등장시키며 화폭 속에 또 다른 공간을 형성시켰다. 화면 안에서 또 다른 공간을 생성함으로써 면을 분리하는 효과를 통해 깊이감 또한 더해진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과 함께 우리가 동물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상하관계의 구조를 엿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잡혀있고 억압받는 느낌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직접 수집한 물건들이나 공구들을 화면 안에서 개체들과의 재조합을 이루면서 고장 난 생명체 같은 이미지를 도출하여 비극성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콘센트, 전선, 공구, 산업품 등을 함께 돼지저금통 형태의 개체들과 배치하고 작품 속의 주체들을 집단형태로 드러내면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민낯을 보여주며 비판성을 형상화시켰다.

돼지저금통을 소재로 작품을 시리즈로 이어가던 중에 대상들에게 기하학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며 작업에 등장시켰다.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는 방식이 아닌 도형을 단순화하고 조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대상의 본질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원, 구, 원기둥의 형태들을 모티브로 조형성을 구축해 나갔고 선을 이용하여 수직, 수평, 곡선 등을 조합해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어나갔다. 기하학적 형태란 인간의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사고체계로부터 창조된 자연을 분해하여 이루어진 조형언어이며 복잡한 자연의 유기적 형태로 부터 간결한 형태로 나타나는 인공적인 추상의 형태라 할 수 있다.²⁴⁾ 기하학적 추상은 프랑스의 화가 폴 세잔(Paul Cezanne)을 시작으로 기하학적으로 보이는 면이나 양감, 윤곽선을 강조시키고 새로운 형태로 구성해나갔다.²⁵⁾ 그 뒤를 이어 피카소 역시 대상을 외형적인 형상을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보다 대상의 기본적인 구조와 여러 시점(視點)에서 본 공간과의 관계를 선

24) 박은숙, 「기하학적 형태를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5

25) 원주영, 「기하학적 형태와 질감 표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7



【작품7】 벽 너머 돼지가 살아가는 법,
159.0×9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에서 연구자는 대상을 표현할 때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같은 개체의 묘사를 반복하다보니 그 대상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새로운 측면을 연구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간략화 시키면서 드로잉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윤곽선을 이용하여 대상을 주관적으로 자유분방하게 표현하였다. 점, 선, 면을 응용하여 단순한 색감과 함께 자유롭게 구성하였다.

과 색채와 형태로 화면에 재창조 하는 것을 더 사실적인 것으로 생각하였고 기하학적인 단면으로 해체시켜 표현하였다.²⁶⁾

기존의 통상적인 돼지저금통의 모습에서 비슷한 형태의 다른 물건들을 거쳐 점점 단순한 원기둥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기하학적인 모형처럼 구상해 나가다가 그 형상을 또 구기거나 변형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나간다.

【작품8】은 작품 속 소재들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결합시키며 복잡한 화면 안에서 대상을 도형적인 형태로 구현하면서 대조적으로 개체의 간결함과 함께 단순하고 안정적인 시각효과를 가져다준다. 초기 작업

26) 임경옥, 「피카소 작품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11

【작품9】는 앞의 작품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공간구성 표현과 대상 표현에 있어서 더욱 간략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주체들은 섬세하게 표현되거나 주인공으로 그려지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고 묘사가 많이 되어있는데 【작품9】에서 돼지의 모습은 매우 간략화 되어있다. 묘사를 해야 작품의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여 항상 주체들을 묘사하거나 눈에 띄게 만들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만들면서도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고 단순함에서 오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는 시각적 효과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화면 안에서 집중이 되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끝으로 갈수록 풀어주면서 작품 안에서의 강약을 표현하였다. 단순한 개체표현과 형체를 알 수 없는 사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추상적인 느낌도 가져다주며 작품 속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다양한 사물들을 재조합하고 다시점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작품 속에서 거리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유동적인 시각적 효과를 나타낸다. 다시점으로 표현 하면서 화면 안에는 또 다른 공간을 생성해낸다. 화면 공간을 면과 선으로 나뉘서 입체적인 느낌과 함께 분할된 화면 안에서의 밀집된 개체들이 쏟아지는 구도를 통해 역동적인 힘을 표출한다.



【작품8】 고장난 것들, 27.3×34.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작품9】 고장난 것들2, 34.8×27.3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작품10】 예쁘게 좀 봐줘, 91.0×116.8cm, 장지에 채색, 2020

연구자의 초기 작품에도 종종 새가 소재로 등장했었지만 2020년에는 작품 대부분을 새를 소재로 작업했다. 일상 속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소재이며 길에서 정처 없이 다니는 모습과 전깃줄에 빼곡하게 모여 앉은 비둘기를 보면서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얇은 줄에 매달려있는 새의 모습이 얇은 빙판 하나에 의지한 채 위태롭게 바다를 떠다니는 북극곰과도 같아 보였다. 환경파괴가 지속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도 저런 얇은 줄과 얇은 빙판 하나에 서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작은 노력이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의 동물들의 위태로운 모습이 미래에 환경오염으로 인해 살 곳을 잃어가는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처럼 투영하게 되었다.

【작품10】은 충무로 거리에서 전깃줄에 빼곡하게 있는 비둘기들을 관찰

하며 여러 각도에서 드로잉을 한 뒤에 그것들을 조합하여 화면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하였다. 적막하고 칙칙한 전봇대와 전깃줄의 색이 아닌 파스텔 톤의 색감을 사용하며 작품 속에서 시각적으로 이들의 유일한 공간인 점과 안락해보이게 강조하고 싶었다. 작품 속에서 새의 모습을 다양하게 연출했다. 연구자가 새를 관찰하였을 때 시각적으로 시선을 끌었던 부분은 색선을 이용하여 강조하며 색감을 이용해 풀어나갔다. 또한 캐릭터처럼 표정을 보여주며 작품 속 주체의 시각에 따라 시선이 이동한다. 함께 존중하고 공존하면서 살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색감이 아닌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채색하여 작품의 배경과는 대조적이고 이질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 속 도심에서는 환대하지 않는 생명체임을 보여주며 비둘기를 소재로 시리즈를 구성하였다.



【작품11】 빛나는 밤 어딘가에서, 90×90cm, 장지에 채색, 2020

【작품11】은 같은 맥락의 작업으로 관찰 대상이 속해있는 시간을 야간으로 설정하였다. 낮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전깃줄 위에서 불안하게 모여 있는 비둘기들을 바라보며 밤에는 그 많은 비둘기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라는 호기심에 시작하게 되었다. 밤의 비둘기들은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을 하며 여전히 전깃줄위에서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담았다. 낮에 봤던 삭막한 도심 속의 전깃줄 위의 비둘기들의 모습을 작품 속에서는 펑키(funky)한 느낌을 살려 현실과 모순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이 처한 현실의 모습을 더 비극적으로 풍자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 이전 작업까지는 아웃라인 선을 검정색을 쓰거나 아니면 원색을 사용하여 외곽선을 그렸었는데 이번 작품은 외곽선을 밝은 색으로 처음 표현한 작업이다. 밤풍경과 함께 작품의 주체들도 어두운 톤으로 들어가면서 밝은 색의 윤곽선으로 주체들을 표현하여 어두운 밤 풍경의 느낌을 더욱 살릴 수 있었다. 전깃줄은 작품 속에서 화면의 흐름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밧줄처럼 그림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하여 보는 재미와 단순한 화면처리의 흐름을 깨주는 역할을 해준다. 연구자의 대체적인 작업 특징 중 하나는 작품 속 주체들은 밀도가 높고 배경은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다. 배경은 밀도가 높지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색감 위주로 은은하게 표현했었다. 하지만 【작품11】에서는 배경 역시 높은 밀도로 표현을 하면서 화면 전체가 높은 밀도로 나타나는 점을 볼 수 있다. 붓을 같은 방향으로 여러 겹 겹치면서 채색을 하여 입체적인 질감효과를 주어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 ‘빛나는 밤 어딘가에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빛나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밤 풍경 속에 빛나는 별 역시 네온사인 효과처럼 표현하였다. 밀도가 높게 표현된 배경과 곡선을 이용하여 공간의 흐름을 표현하면서

작업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일상 속에서 보고 겪은 여러 이미지들을 포착하고 재조합하여 한 화면 안에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화면 속에서는 다양한 시점이 재조합하여 보여 지는데 이는 동양의 그림에서 주로 사용된 이동시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동시점은 동양의 그림과 연결되며 일원론적 자연관의 산물인 동양의 그림은 생명체인 대상의 본질과 전체를 표현 하려하고 산수화에서 화가가 직접 거닐고 사색하면서 체험한 자연의 본질과 전체, 혹은 눈이 머물거나 마음이 머무는 장소가 시점의 중심이 되어, 보이지 않는 경치가 있으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시점을 이동시켜 보는 것을 의미한다.²⁷⁾ 산점투시(散點透視)는 이동시점에서 분파된 시점을 여러 곳에서 바라보는 방식이다. 산점투시는 한 시점에 맞춰서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시야 안에서 관찰하며 얻은 결과를 한 폭의 작품 속에서도 잘 어울리도록 구성하여 화면 안에 다양한 시점과 초점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²⁸⁾ 걸음을 옮겨가며 순간을 포착하고 다양한 시점들과 함께 이미지들의 재조합을 통하여 화면 구성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어준다. 바라봤던 대상들을 단순화 하여 도형화시켜서 표현하고 알록달록한 색감들과 함께 외곽선으로 대상을 강조해주면서 작품 속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부각시켜 주는 효과를 준다.

【작품12】의 배경은 연구자의 아파트 안에 나무들의 모습과 아파트 밖의 풍경을 보면서 상반되는 두 이미지를 조합하여 만든 모습이다. 아파트 밖에는 보도블록들을 공사가 행해지고 있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보도블록 길과 그 길가에 심어진 나무들 사이에 이질감이 느껴졌다. 비둘기들이 전깃줄이 안락해서 그 곳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도블록 길

27) 정인수, 「초등 한국화 교육의 교수·학습 모델 연구」, 학술논문, 2003, p.140-141

28) 김귀옥, 「한국화 감상지도를 위한 Ict 자료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16

가에서 자라나고 있는 나무들에게도 그곳이 그들의 삶을 편안히 영위하는 장소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때 봤던 이질적인 풍경, 그 찰나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한 화면 안에서 연구자의 고찰과 함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보도블록과는 이질적인 색감으로 나무를 표현하며 동시에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비둘기와 색감을 맞춰 보도블록, 나무, 비둘기 간의 이질감과 동질감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작품12】 공준, 116.8×180cm, 장지에 혼합재료, 2020

【작품12】는 산점투시 방식을 한 화면 안에 재조합하여 이미지를 표출했다면 【작품13】은 조각형식으로 나뉘서 서로 다른 시야에서 바라본 이미지를 퍼즐형식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과 동시에 배경에 나타나는 도형을 도식화 시켜서 보이고자 하는 주체를 돋보이게 해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실제 이미지와는 대조되는 색감을 사용하고 외

곽선을 이용해 주체를 부각시켜주고 파스텔 톤의 색감과 선과 면을 이용하여 이들이 처한 현실과 대조적인 상황처럼 작업에서는 나타내고 있다. 개체 이외의 것들은 단순하게 표현된 기하학적인 패턴형태의 조형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며 작품 속 주체에게 집중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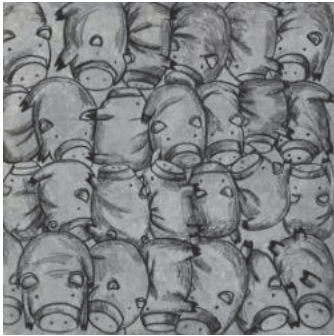
【작품13】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21×21cm×9, 장지에 채색, 2020

2) 표현기법 및 재료적 특성

연구자의 초기 작업부터 최근 작업까지를 비교해봤을 때 연구자의 작업에는 선적인 요소, 드로잉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한다. 동양화 재료인 장지를 주로 사용하며 그 위에 콩테(conté)를 사용하여 스케치를 행한다.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 대신에 콩테를 사용하면 그 위에 한지의 결이 일어나면서 물감을 입혔을 때 콩테의 가루와 섞여 회화적인 느낌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주로 분채를 사용하며 분채는 가루 알갱이들을 아교로 녹여서 채색한다. 또한 수간 채색 방식으로 한지에 부드럽게 여러 겹을 겹쳐서 스며드는 느낌을 보여 주며 분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감 때문에 계속해서 분채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동양화 재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양화 재료인 과슈(gouache)나 아크릴도 종종 사용하며 건식재료와 수간채색 방식으로 평면작업의 깊이감을 더해간다.

연구자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손이 가는대로 콩테를 사용해 장지에 드로잉을 한다. 드로잉을 통하여 연구자는 무의식 혹은 내면에 지니고 있는 사고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한다. 이는 드로잉의 특징인 단순함, 즉흥성을 기반으로 우연한 발상과 함께 의도치 않은 회화적인 힘을 가지게 한다. 콩테 드로잉을 하게 된 계기는 가장 흥미롭게 그림을 그렸던 순간처럼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에 낙서하듯이 자유롭게 손 가는대로 그렸던 방식처럼 장지위에 콩테로 형태, 굴곡, 원근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주관대로 표현해 내면서부터 콩테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 채색을 하면 콩테의 어두운 가루와 물감이 만나면서 분채의 색감에서 툃다운 된 색감을 표현 할 수 있었다.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개인적인 경험을 투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콩테를 통해 형태를 드로잉 하였다. 그 위에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운 감정을 강조하고자 했다. 콩테로 검은 외곽선

을 채색한 작업 위에 다시 그려주면서 작품 속 주체에 대한 몰입감과 주제를 더욱 부각 시킬 수 있다. 검은 외곽선은 만화적 요소이면서 주체의 행위에 집중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검은 외곽선은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²⁹⁾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피티 아트는 길거리나 벽면에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낙서하면서 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조형적 요소들이 있으며 그중에서 선적인 요소가 가장 도드라진다. 만화나 그래피티 아트에서 볼 수 있듯이 선이 가진 조형적요소를 통해서 주체를 집중시켜 보여주면서 회화에서 설명적인 요소를 더해준다.



【작품14】 Drawing,
30×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품15】 Drawing,
30×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품16】 Drawing,
30×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콩테를 이용한 외곽선 표현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붓을 이용하여 선적인 요소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화면의 크기가 커지면서 외곽선의 굵기도 이에 맞게 비례해 커져야했고 크기로 압도하는 평면예술 속에서 느껴지는 힘을 보여주고 싶어 대형작업을 하게 되었다. 화면 안에서 면적인 분할을 통해서 공간감을 주고 채색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장지에 색감을 채워나갔다. 한지의 특성상 여러 겹의 채색을 통해서 고유의 색을 나타낼 수 있다. 반복

29)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굵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네이버 지식백과] 그래피티 아트 [graffiti art] (두산백과)

행위를 통하여 채색을 하고 외곽선은 거친 붓으로 콩테에서 느낄 수 있던 거칠고 힘 있는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건식재료로 표현하는 선의 느낌과 물감을 이용하여 선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순성이 있었다. 재료적인 차이 때문에 콩테 드로잉의 작업 느낌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거친 붓에서 선적인 요소를 표현하면서 또 다른 동적인 요소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강렬한 채색과 함께 보색의 선을 사용하면서 작품 속 주체 및 요소들에 대한 강조 표현도 할 수 있었다. 큰 붓을 사용하면서 우연히 떨어지는 물감의 효과와 거침없는 붓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흐르는 기법, 물감의 우연의 효과 등의 회화적인 요소들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시선이 집중되고 화면 속 사물 혹은 개체들이 밀집하는 공간은 건식재료도 함께 사용하면서 좀 더 섬세한 표현에 집중하였다. 딱딱한 장난감의 형태인 개체 속에 살아있는 장기를 넣어 대조적인 요소를 보여 주면서 그로테스크적인 요소들과 함께 비판의식을 이미지화 시켰다.

연구자의 작품의 색감은 콩테와 물감의 만남을 통해서 톤을 다운시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의 작품들을 반복하다보니 분채 고유의 색감을 작품 속에서 표출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건식재료를 사용하면서 회화적으로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좋았지만 색이 탁해지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 연구자는 색감에 좀 더 집중해보기로 했다. 색감을 통해서 시각적, 심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감정과 장지와 동양화재료인 분채의 색감이 만났을 때 고유의 색감을 통해 또 다른 시각적 요소를 표현하고자 했다. 색채를 통해서 의미나 정서를 직접적으로 시·지각의 직관적 방법에 의해서 독립된 조형언어로 표현하려 한다.³⁰⁾

작품 속 색감의 특징들을 보면 강한 원색과 함께 보색 사용을 많이 하였다. 보색을 이용한 색채 표현은 대비를 이루며 그림 속 조화를 이루어지게

30) 정계향, 「색채 표현을 통한 내면적 감성의 시각적 표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12

한다. 또한 보색을 사용한 윤곽선의 표현은 색면을 분리시켜주며 대상을 돋보이게 해주는 효과를 준다.



【작품17】 차라리 심장이 없는 게 나을지도 몰라, 181.8×227.3cm, 장지에 혼합재료, 2019

【작품18】은 연구자의 지금까지의 작품 속 등장했던 요소들의 총집합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파괴되어 가는 자연과 피해 받는 동물들, 그리고 이 모습들이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풀어간다. 작품 안에서 주인공은 작품 속 보여 지는 돼지, 새, 강아지를 비롯한 동물들이거나, 사물들이지만, 그들이 그림 속에서 취하고 있는 행동이나 딱딱한 형태로 그려지거나 개체들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한 것은 그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들을 위기에 처하게

한다. 편리를 추구하며 발달이란 단어를 앞세워 이기적으로 행동한 우리들 때문이다. 연구자의 작업 안에서의 동물들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그림 속 주인공이 된다. 어딘가 로부터 탈출하기를 희망하거나 억울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을 지도 모른다. 작품 속 동물들이 주체가 되어 무언의 행동을 하고 있다. ‘작당모의 집합소’ 작품의 제목처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복수를 꿈꾸며 작당모의를 하지만 그들의 작당모의는 실패로 끝날 것이다. 험난한 인간들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함께 존중하고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서 설명적 요소들, 우화적인 기법을 담아 작업을 하고 있다.

연구자의 초기 작업들은 드로잉을 시작으로 동물이라는 소재에 한정지어 작업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작업들을 하면서 다양한 색감들을 사용하며 재료들을 접근하고 우리들의 삶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함께 공존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노력하기를 바라며 현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한다.



【작품18】 작당모의 집합소, 145.5×336.3cm, 장지에 채색, 2020

Ⅲ. 결 론

본 논문은 일상 속에서의 고찰을 토대로 동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자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연구자는 본인의 내재된 사고, 즉 동물과 자연을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것을 바탕으로 사물 및 개체들을 주관적 시각화를 통해 조형적으로 형상화시키며 접근하였다. 풍자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우화의 개념을 차용하여 작품 속에 녹여내었으며,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태도, 무분별한 개발, 현실에 대한 비판성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 속 등장하는 장난감 모습의 동물들의 배치와 형상을 조절하여 이미지를 재결합해나간다. 또한 존중과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우화적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 속 등장하는 동물, 자연을 주인공화 시키고 작품 안에서 주체가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물들을 등장 시켜 구성하면서 주체의식에 대해 설명을 하며 이끌어간다. 작품 속에 담긴 비판적 주체의식과는 대조적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체들은 그로테스크적인 표현도 하였지만 친근한 장난감, 인형 혹은 캐릭터의 모습으로 표현하여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하였고 외적 표현과 그 안에 담긴 비판성을 보여주며 대조적이고 이질적 느낌을 통해 현실의 모습을 풍자하며 우화적 설명기법을 통해 교훈을 전달하고 작품을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연구자의 초기 작업들은 주제 전달을 위한 직접적인 표현과 함께 경각심 제고를 우선시하였다.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을 통해 작업을 풀어감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모습까지 연결되며 다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게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 영역이 확장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폭도 넓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형적인 형상을 그대로 표현하기 보다는 독창적으로 재해석하여 주체가

되는 동물들을 사물화 시키고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보여주면서 작품 속 본인만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우화적 요소가 예술작품에서는 어떻게 작용되는지 팔대산인의 작품을 분석하여 그의 간략한 표현 속에서 동양화만의 재료적 특성과 작품 속 주체로부터 구체적 상징성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동양의 그림에서 자주 사용된 이동시점인 산점투시 방식을 연구하고 본인의 작품에 적용시키며 다양한 시점과 초점을 한 화면 안에 보여주었다.

작품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 점을 알 수 있었다. 초기에는 드로잉을 시작으로 선적인 요소를 강조해 작업을 풀어나갔다. 건식재료와 함께 밀집력을 보여주며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한지와 콩테 그리고 분체가 섞이며 특유의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현재의 작업은 초기 작업에서 색감표현의 아쉬움을 극복하고자 색채 위주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물감과 붓을 이용하여 건식재료가 나타내는 효과, 콩테를 사용했을 때 보이는 느낌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초기 작업 안에서 보이는 밀집력과 현재의 작업에서 보이는 색감 사용의 장점을 잘 조합하여 효과적인 색감표현과 건식재료의 드로잉 느낌을 살려 압도감과 깊이감 있게 회화가 주는 힘을 표출하고 싶었다.

연구자는 우화적 상상력에 기반 하여 일상 속에서의 관찰과 사고를 통해 장난감 혹은 캐릭터처럼 주관적 시각으로 표현하였다. 친근한 이미지로 표현하여 독자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우화처럼 그림을 통해 교훈을 주고 싶었다. 이를 기반으로 작품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사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함께 존중하며 공존하는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사고하고 작품표현에 있어서도 평면회화 안에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본인의 조형요소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확장의 개념으로 평면작업에 국한되지 않고 평면 안에 있던 개체들

이 우리가 보는 시야 앞에 펼쳐졌을 때의 얻는 또 다른 감성과 영역이 확대 되었을 때 주는 힘을 사유하며 입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우화적 요소들을 대입해 회화에서 조형적으로 확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본인의 주관적 회화 표현을 더욱 확장시켜 주관적 표현기법과 함께 다양한 회화적 요소들을 사유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작업을 발전 시켜 나아갈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태환, 『우화의 서사학 40가지 테마로 읽는 이솝 우화』, 서울 : 문학파 지성사, 2016
- 루이지 피카치, 양영란 옮김, 『프랜시스 베이컨 : 1909-1992』, 서울 : 마로니에북스
- 마틴 게이퍼드, 주은정 옮김, 『다시, 그림이다 : 데이비드 호크니와의 대화』, 서울 : 디자인하우스, 2012
- 이솝, 송경원 옮김, 『(새롭게 재해석한)이솝우화전집 = Aesop's fables』, 고양 : 하늘연못, 2008
- 장 그르니에, 김용기 옮김, 『일상적인 삶』, 서울 : 민음사, 2001
- 프란체스코 갈루치, 김소라 옮김, 『피카소 : 무한한 창조의 샘』, 서울 : 마로니에북스, 2007

논문

- 김귀옥, 「한국화 감상지도를 위한 Ict 자료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은숙, 「기하학적 형태를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서호상, 「八大山人의 화풍과 사상적 배경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원주영, 「기하학적 형태와 질감 표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임경옥, 「피카소 작품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장유연, 「팔대산인의 삶과 예술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정계향, 「색채 표현을 통한 내면적 감성의 시각적 표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정혜윤, 「색면의 반복과 중첩에 의한 유기적 형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조경훈, 「우화를 통한 인간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조신영, 「이미지의 나열과 반복을 통한 모호함의 시각적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학술지

- 박재연, 이미진, 「일상적 사물을 소재로 한 도자작품 연구」, 조선대학교 조형미술연구소 조형미술논문집, 2012
- 연구원자료, 「팔대산인 화조(八大山人 花鳥)·어화(魚畫)의 미적 특성」, 상명대학교 조형예술연구소 조형예술연구, 2005
- 장정호, 「이솝우화의 교육적 해석 : 우화로서의 특징과 그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부천대학교 학술논문, 2019
- 정인수, 「초등 한국화 교육의 교수·학습 모델 연구」, 학술논문, 2003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ABSTRACT

A Study on Paintings Expressing Allegorical Imagination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 -

Choi, Ha Young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based on the idea of respecting animals and nature and coexisting together. It was described through the works from 2017 to 2020 and the work of the master's degree exhibition called 'Jakdangmoui' in 2020.

The anthropocentric modern society neglects animals and nature. Looking at these characteristics, the researcher hopes that people will coexist with animals and nature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duce the sympathy of viewers by expressing these contents in the researcher's artwork.

As a part of this, the allegorical explanatory technique was applied to the conversation as if learning a lesson from a fable, and the topic was effectively conveyed. Real satire and humorous elements were melted into

the work to personify and express the subjects. And for more in-depth expression, the concept and expression elements of fables were theoretically considered and how they were expressed in art was investigated.

As an example of using allegorical elements, Francis Bacon visually expressed satire in a grotesque-like way of expression. Bada Shanren shows that Oriental art is also included in the category of fables by expressing satire and the artist's feelings in relation to nature.

Elements applied in the work were analyzed through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allegorical elements. Based on this process, it was possible to complete the image of the researcher's own work by establishing the critical consciousness as a subjective expression of the subject.

The researcher expresses the animals, the subjects of her work, like toys or objects, and at the same time shows satire on reality. Transformation and distortion of the object were made accordingly. In the process, the artist also expanded her field of view, not limiting her subjects to animals but also to nature. This scalability emerges as a narrative through the work and leaves a message to the observers.

This researcher expressed her paintings in an allegorical way in the hopes that they would give the observers a sense of caution and at the same time have an opportunity to think. Based on this, looking at the changing elements from her early works to her later works suggests a futuristic possibility that our lives can become like nature and animals that are being destroyed.